

금호, 탄소나노튜브 생산 본격화

플라스틱제품과 연계해 응용수지 확대 ... 분진 최소화로 환경까지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 Tube)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충남 아산시 전자소재 공장의 4만3860평방미터에 탄소나노튜브 50톤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12월11일 발표했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동소체 일종으로 인장강도가 철의 100배에 이르고 전기전도성도 구리보다 1000배 높아 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가전, 생활용품,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정전기 방지용 기초 원료 소재에서 전자과 차폐재, 방열 복합재 등 플라스틱 제품과 연계한 응용수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타이어 생산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합성고무의 무게를 줄이고 내마모성을 개선한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고밀도화 기술을 통해 분말 밀도를 0.14g/ml까지 향상시켰고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탄소나노튜브의 잠재력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에 있다”며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소재 등 다른 산업 부문과의 협업은 물론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11>